

# 원픽

one pick:  
내가 최고로 뽑은 것!

| 고등 국어 |

# 독서

# 독서

# 신수능 전략

수능 국어 공통 과목, 독서!  
더욱 어려워지고 복잡해진 독서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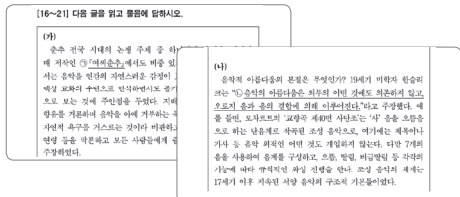
# 수능 독서! '무엇을', '어떻게' 보고 학습 방법을 찾으면 될까?

문제가 점점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최근 수능 출제 경향을 생각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지문과 정보를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 팩트 체크!

### ✔ (가) + (나)의 신유형 지문 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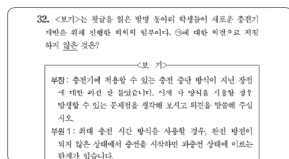
- 연결점이 있는 두 편의 글이 제시되는 새로운 구성의 지문이 출제됨.
- 두 편의 글을 비교·분석하며 주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신유형 지문임.
- 독서 3세트 중 1세트는 (가) + (나)의 긴 지문 형태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됨. → 효율적인 독해 시간 관리가 필요함.



[2022 예시 문항 16~21번 지문]

### ✔ 추론적·비판적 이해 등을 요하는 고난도 문항 강화!

- 세트별 문항 수 증가에 따라 수준 높은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문항이 강화됨.
- '다양한 글의 주제 통합적 읽기, 독서 목적에 맞게 내용 재구성하기, 문제의 해결 방법이나 대안을 찾는 창의적 읽기, 과학적 지식과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읽기' 등 깊이 있는 추론적·비판적·창의적 이해를 요하는 문항의 비중이 높아짐.



[2022 예시 문항 32번]

## 전략 체크!

### ✔ 단계별 실전 학습을 통한 독해력 강화!

- 제한된 시간 안에 길고 어려운 지문을 정확하게 독해하기 위해 지문 분석 방법을 익힌 후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고 핵심 정보를 정리하는 훈련 등을 꾸준히 해야 함.
- '기본 → 실력 → 완성'의 순서로 영역별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난도가 높아지는 실전 문제의 단계별 학습을 통해 긴 지문, 고난도 지문에 대한 독해력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어야 함.

### ✔ (가) + (나)의 실전 문제를 통한 신유형 대비!

- (가)와 (나)로 엮인 최신 기출 지문과 문항을 학습한 후, 그와 유사한 형태로 구성된 예상 지문과 문항으로 실전 감각을 높일 수 있어야 함.
- (가) + (나)의 신유형 세트에서 주로 출제되는 서술 방식 비교 문항, 관점이나 태도의 비교 문항, 종합적인 내용 재구성 문항 등을 학습해야 함.

### ✔ 정확한 정보 찾기 훈련을 통한 고난도 문항 대비!

- 사실적 이해뿐만 아니라 추론적·비판적 이해 등을 요하는 고난도 문항도 지문이나 <보기>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확인하는 과정을 충실히 거쳐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훈련해야 함.
- <유형 해결 훈련>의 정보 확인 문제, <실전 문제>의 '정보의 ○○\_이렇게 풀자!'라는 정보 확인용 ○× 문제 등을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 찾기 훈련을 반복하여 고난도 문항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함.

# 독서 사용 실명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독서 영역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 교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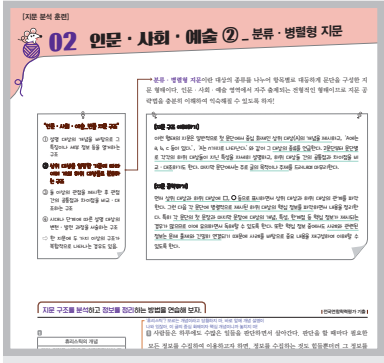
## 학습 순서 예시

<h3>본책(문제)</h3> <p><b>완벽한 수능 준비 학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기출 세트 + 유사 예상 세트로 이루어진 수능 대비 최적의 구성</li> <li>• 최신 기출 분석을 통한 신유형 추가</li> </ul>	<h3>정답과 해설</h3> <p><b>지문 핵심 분석과 정확한 문제 풀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문의 핵심 정보 분석</li> <li>• 정확한 정답 해설, 필요한 오답 분석, 충실한 보기 분석</li> </ul>
---	--

- ① 학습 계획표 작성
- ② '지문 분석 훈련' 학습
- ③ '유형 해결 훈련' 학습
- ④ '기본\_실전 문제' 학습
- ⑤ '실력\_실전 문제' 학습
- ⑥ '완성\_실전 문제'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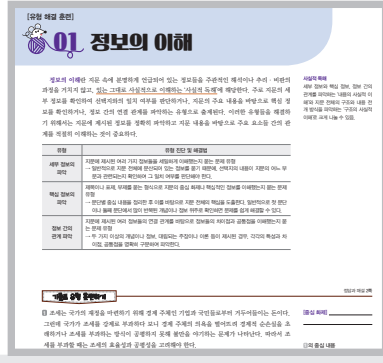
- ⑦ 지문 분석 학습
- ⑧ 정오답 분석 확인

## 우리 교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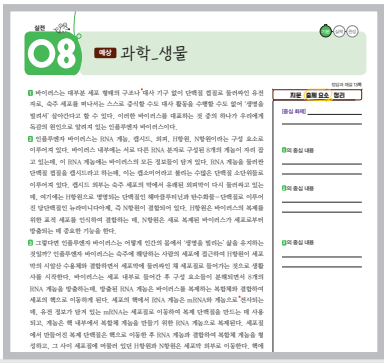
▲ 지문 분석 훈련

- 수능 독서의 길고 어려운 지문을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도록 지문 분석 훈련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 빈출 지문 구조 4개 유형을 선정하여 지문 구조별 독해 공식과 그 적용 훈련, 정보 정리 연습 등을 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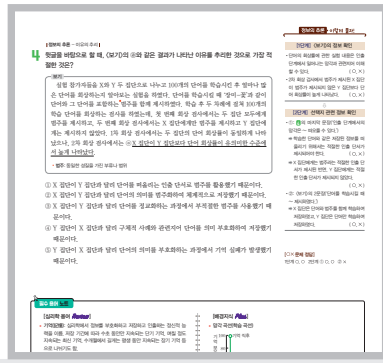
▲ 유형 해결 훈련

- '정보의 이해, 정보의 추론, 정보의 비판, 정보의 적용/창의'라는 수능 독서의 네 가지 대표 문제 유형에 대한 해결법을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문제 유형별 정보 확인 연습을 통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문제 유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기출 + 예상'의 실전 구성

- 우수 기출 세트를 통해 출제 경향과 문제 유형, 정보 정리 및 확인 과정 등을 익힌 후, 기출 세트와 세부 영역이 동일한 예상 세트를 통해 수능 감각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정보 확인 장치 등 세부 구성

- 문제 유형별 정보 확인 장치('정보의 ○○\_이렇게 풀자!'), 정보 기억을 위한 지문 View, 세부 영역별 필수 용어 노트, <보기> 분석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하고 친절한 장치들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책의 차례

- **계획일** 나의 페이스에 맞게 일정 수립하기
- **학습일** 실제로 공부한 날을 적기

## I. 정보 분석 훈련하기

			계획일	학습일
<b>[지문 분석 훈련]</b>			/	/
01	인문·사회·예술 ① - 화제 집중형 지문	8	/	/
02	인문·사회·예술 ② - 분류·병렬형 지문	10	/	/
03	과학·기술 ① - '구조 + 과정'형 지문	12	/	/
04	과학·기술 ② - 변천·발달형 지문	14	/	/

			계획일	학습일
<b>[유형 해결 훈련]</b>			/	/
01	정보의 이해	16	/	/
02	정보의 추론	18	/	/
03	정보의 비판	20	/	/
04	정보의 적용 / 창의	22	/	/

## II. 수능 감각 익히기

			계획일	학습일
<b>[기본]</b>			/	/
실전 01	<b>기출</b> 인문_심리학 - 망각의 부호화	26	/	/
실전 02	<b>예상</b> 인문_심리학 - 귀인 이론	29	/	/

			계획일	학습일	
실전 03	기출	사회_정치 - 정치 문화의 유형	32	/	/
실전 04	예상	사회_정치 - 선거 제도와 투표 형태	34	/	/
실전 05	기출	예술_미술 - 미래주의 회화	37	/	/
실전 06	예상	예술_미술 - 추상 미술	40	/	/
실전 07	기출	과학_생물 - 염증 반응	43	/	/
실전 08	예상	과학_생물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46	/	/
실전 09	기출	기술_산업 기술 - 진공 증착 기술	50	/	/
실전 10	예상	기술_산업 기술 - 초임계 유체	53	/	/

			계획일	학습일	
<b>[ 실력 ]</b>				/	/
실전 01	기출	인문_철학 - 흄의 경험론	56	/	/
실전 02	예상	인문_철학 - 순자의 수양론과 류	59	/	/
실전 03	기출	사회_법률 - 법의 개념과 종류	62	/	/
실전 04	예상	사회_법률 - 소멸 시효 제도	66	/	/
실전 05	기출	예술_영화 - 영화 작가주의	69	/	/
실전 06	예상	예술_영화 - 영화의 미장센	72	/	/
실전 07	기출	과학_물리 - GPS의 위치 파악 원리	75	/	/
실전 08	예상	과학_물리 - 특수 상대성 이론	78	/	/
실전 09	기출	기술_정보 처리 - 음성 인식 기술	82	/	/
실전 10	예상	기술_정보 처리 - 텍스트 마이닝	84	/	/

			계획일	학습일	
<b>[ 완성 ]</b>				/	/
실전 01	기출	사회_경제 - 국제 무역론	88	/	/
실전 02	예상	사회_경제 -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91	/	/
실전 03	기출	기술_전기·전자 - 유선 충전기의 원리	95	/	/
실전 04	예상	기술_전기·전자 - 무선 충전기의 원리	98	/	/
실전 05	기출	(가) 예술, (나) 예술 - 음악에 관한 관점 (신유형)	101	/	/
실전 06	예상	(가) 예술, (나) 예술 - 미술의 작가 정신 (신유형)	106	/	/
실전 07	기출	(가) 인문, (나) 인문 - 과거제의 효과와 개혁 (신유형)	111	/	/
실전 08	예상	(가) 인문, (나) 인문 - 칸트와 듀이의 도덕론 (신유형)	115	/	/
실전 09	기출	융합_인문 + 과학 - 실어증과 언어 처리 과정	120	/	/
실전 10	예상	융합_인문 + 과학 - 청소년기의 특성과 뇌 발달	124	/	/



# 정보 분석 훈련하기

## 지문 분석 훈련

- 더욱 어려워지고 복잡해진 독서 지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영역별 빈출 지문 구조 네 개 유형에 대한 학습법을 제시하였습니다.
- 지문 구조를 분석하고 정보를 정리하는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지문을 전략적으로 독해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 유형 해결 훈련

- 수능 독서 영역에서 출제되는 네 가지 대표 문제 유형에 대한 해결법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지문이나 <보기>에서 문제 풀이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 확인하는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고난도 문항도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훈련**

- 01 인문·사회·예술 ① - 화제 집중형 지문
- 02 인문·사회·예술 ② - 분류·병렬형 지문
- 03 과학·기술 ① - '구조 + 과정'형 지문
- 04 과학·기술 ② - 변천·발달형 지문

**유형 해결 훈련**

- 01 정보의 이해
- 02 정보의 추론
- 03 정보의 비판
- 04 정보의 적용 / 창의



# 01 인문 · 사회 · 예술 ① - 화제 집중형 지문

→ **화제 집중형 지문**이란 주요 설명 대상인 하나의 중심 화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지문 형태이다. 인문 · 사회 · 예술 영역을 포함한 독서 영역 전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공략법을 확실히 알아두자!

공

## “인문 · 사회 · 예술\_빈출 지문 구조”

- ① 설명 대상의 개념을 바탕으로 그 특징이나 세부 정보 등을 열거하는 구조
  - ② 상위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개의 하위 대상으로 분류하는 구조
  - ③ 둘 이상의 관점을 제시한 후 관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 대조하는 구조
  - ④ 시대나 단계에 따른 설명 대상의 변천 · 발전 과정을 서술하는 구조
- ⇒ 한 지문에 두 가지 이상의 구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공

## [지문 구조 이해하기]

이런 형태의 지문은 일반적으로 첫 문단에서 중심 화제인 어떤 개념이나 원리, 이론 등을 제시한 후, 2문단부터 중심 화제의 특성이나 방식 등 중심 화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정보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때로는 그 특징을 다른 대상과 비교하기도 한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주로 중심 화제의 의의나 효용성 등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한다.

## [지문 공략하기]

먼저 첫 문단을 통해 중심 화제를 파악한 후 문단별로 중심 화제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정보를 정리한다. 앞 문단의 내용을 바로 뒤 문단에서 보충하여 설명하거나 하나의 내용을 두 문단에서 적절히 나누어 세밀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있는 문단끼리 연결 지어 독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제 지문의 경우 그래프, 수식이나 공식을 활용하는 계산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관련 용어나 개념은 물론이고 비례나 반비례 등 요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도 꼼꼼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공

## 지문 구조를 분석하고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자.

|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 |

1

### 손익 분기점의 필요성

기업이 제품을 최소한 어느 정도 판매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함.

1 기업은 제품이 어떤 가격에서 어느 정도 판매될 것인지를 예상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그런데 기업이 예상한 만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상보다 적은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들이 제품을 최소한 어느 정도 판매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손익 분기점**이다.

이 글의 중심 화제야. 앞에서 '손익 분기점'의 필요성을 말한 다음 '손익 분기점'에 내용 전개의 초점을 맞추는, 도입부의 전형적인 흐름을 보여 주고 있어.

2

### 손익 분기점의 개념

기업의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

### 손익 분기점과 관련된 개념들

- 수익 = 제품의 가격 × 판매량
- 비용 = 고정 비용 + 변동 비용
- 이익 = 수익 - 비용

2 손익 분기점은 기업의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을 말한다. 손익 분기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익과 비용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기업의 **수익**은 제품의 가격과 판매량의 곱이고, **비용**은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이때 수익에서 수익이나 공식이 나올 때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놓는 것이 요령**이다. **비용을 빼면** 기업의 **이익**이 된다. 그러므로 손익 분기점은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의 판매량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판매량을 **손익 분기점 판매량**이라 한다. 손익 분기점 판매량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text{손익 분기점 판매량} = \frac{\text{고정 비용}}{\text{가격} - \text{단위당 변동 비용}}$$

문제 풀 때 꼭 필요한 핵심 공식이라는 직감이 들지? 공식을 이루는 각각의 용어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둬야 해.



3 여기에서 고정 비용은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변하지 않는 비용이다.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 비용, 임대료, 연구 개발비 등이 대표적인 고정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에는 일정 수준의 고정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에 변동 비용은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이다.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비용, 포장비 등이 변동 비용에 속한다. 변동 비용은 제품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다. 그리고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합한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해당 제품의 단위당 비용이 된다. 마찬가지로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각각 생산량으로 나누면 해당 제품의 단위당 고정 비용, 단위당 변동 비용이 된다.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손익 분기점 판매량을 산출해 보면, 고정 비용이나 단위당 변동 비용이 늘어날수록 손익 분기점 판매량은 커지게 된다. 비례 관계가 또 나왔네. 확실히 정리해 두자!

4 예 < 어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고정 비용은 20,000원, 단위당 변동 비용은 100원, 제품의 가격은 500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제품의 손익 분기점 판매량은  $\frac{20,000}{500-100}$  단위이다. 즉 기업이 이 제품을 50단위 판매했을 때 수익과 비용이 같다. 그러므로 이 제품을 50단위보다 많이 판매한다면 기업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5 기업의 손익 분기점 분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비용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비용이 달라진다면 손익 분기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판매량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한다. 예상과 달리 실제 판매량이 손익 분기점 판매량보다 적다면 기업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기업은 손익 분기점 분석을 통해서 제품의 판매 성과에 대한 평가, 적절한 생산 방법의 결정 등 각종 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 글의 핵심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 '손익 분기점' 분석이 어떤 효용성을 지니는지 언급하면서 끝맺음을 하고 있어.

3

손익 분기점 판매량 산출에 필요한 개념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정 비용 -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변하지 않는 비용</li> <li>변동 비용 -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생산량에 비례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위당 비용 = (고정 비용 + 변동 비용) ÷ 생산량</li> <li>단위당 고정 비용 = 고정 비용 ÷ 생산량</li> <li>단위당 변동 비용 = 변동 비용 ÷ 생산량</li> </ul>
손익 분기점 판매량 산출 공식의 특징
고정 비용 또는 단위당 변동 비용 ↑ → 손익 분기점 판매량 ↑ (비례함.)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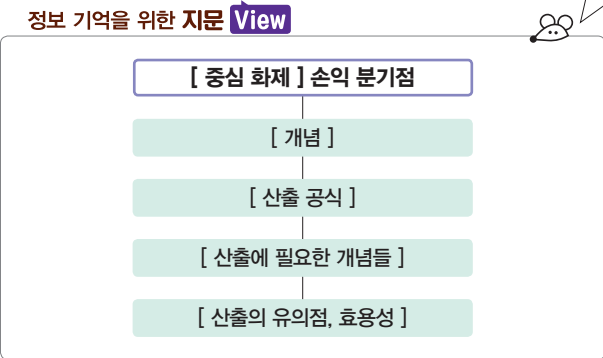
손익 분기점 산출의 예
손익 분기점 판매량 $= \frac{\text{고정 비용}(20,000)}{\text{가격}(500) - \text{단위당 변동 비용}(100)} = 50$ → 제품을 50단위보다 많이 판매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음.

5

손익 분기점 산출의 유의점, 효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용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li> <li>판매량을 정확히 예측해야 함.</li> <li>제품의 판매 성과에 대한 평가, 적절한 생산 방법의 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li> </ul>

[주제]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필요한 손익 분기점의 산출과 효용

지문에 제시된 수많은 정보를 모두 기억해서 문제를 풀기는 어렵지만,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정보를 구조화해서 정리하면 필요한 정보의 위치를 기억하기 쉬워져서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어.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독해 시간이 훨씬 줄어들 거야.





# 02 인문 · 사회 · 예술 ② \_ 분류 · 병렬형 지문

→ **분류 · 병렬형 지문**이란 대상의 종류를 나누어 항목별로 대등하게 문단을 구성한 지문 형태이다. 인문 · 사회 · 예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전형적인 형태이므로 지문 공략법을 충분히 이해하여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자!

공

**“인문 · 사회 · 예술\_빈출 지문 구조”**

- ① 설명 대상의 개념을 바탕으로 그 특징이나 세부 정보 등을 열거하는 구조
- ② 상위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개의 하위 대상으로 분류하는 구조
- ③ 둘 이상의 관점을 제시한 후 관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 대조하는 구조
- ④ 시대나 단계에 따른 설명 대상의 변천 · 발전 과정을 서술하는 구조

⇒ 한 지문에 두 가지 이상의 구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공

**(지문 구조 이해하기)**

이런 형태의 지문은 일반적으로 첫 문단에서 중심 화제인 상위 대상(A)의 개념을 제시하고, 'A에는 a, b, c 등이 있다.', 'A는 n가지로 나타난다.'와 같이 그 대상의 종류를 언급한다. 2문단부터 문단별로 각각의 하위 대상들이 지닌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하위 대상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 대조하기도 한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주로 글의 목적이나 주제를 드러내며 마무리한다.

**(지문 공략하기)**

먼저 상위 대상과 하위 대상에 □, ○ 등으로 표시하면서 상위 대상과 하위 대상의 관계를 파악한다. 그런 다음 각 문단에 병렬적으로 제시된 하위 대상의 핵심 정보를 파악하면서 내용을 정리한다. 특히 각 문단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대상의 개념, 특성, 한계점 등 핵심 정보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유의하면서 독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핵심 정보 중에서도 사례와 관련된 정보는 문제 출제와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에 사례를 바탕으로 중요 내용을 재구성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지문 구조를 분석하고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자.**

[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 ]

**1**

<b>휴리스틱의 개념</b>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어렵짐작하여 판단하는 것
<b>휴리스틱의 종류</b>
대표성 휴리스틱,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 시물레이션 휴리스틱 등

**2**

<b>대표성 휴리스틱의 개념</b>
특정 집단의 전형적인 이미지와의 유사성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
<b>대표성 휴리스틱의 특성, 한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됨.</li> <li>•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이지는 않음.</li> </ul>

“휴리스틱”? 모르는 개념이라고 당황하지 마. 바로 앞에 개념 설명이 나와 있잖아. 이 글의 중심 화제이자 핵심 개념이니까 놓치지 마!

**1**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간다. 판단을 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하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힘들뿐더러 그 정보를 처리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어렵짐작을 하게 되는데, 이를 **휴리스틱**이라고 한다. 이러한 휴리스틱에는 대표성 휴리스틱과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 그리고 시물레이션 휴리스틱 등이 있다.

이 방식으로 설명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항상 글의 도입부인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유의해서 살펴보는 것을 잊지 마!

**2** **대표성 휴리스틱**은 어떤 대상이 특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판단할 때, 그 대상이 특정 집단의 전형적인 이미지와 얼마나 닮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을 말한다.

**예** <우리는 키 198cm인 사람이 키 165cm인 사람보다 농구 선수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한다.> 이와 같이 대표성 휴리스틱은 흔히 첫인상을 형성할 때나 타인에 대해 판단을 할 때 작용한다. **그러나** 대표성 휴리스틱에 따른 판단은 그 대상이 가지고 전환을 나타내는 접속어야. 앞 내용과 달리 뒤에서는 대표성 휴리스틱의 문제나 한계 등도 설명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지 않는 특정 집단의 전형적인 속성에만 주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은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은 당장 머릿속에 잘 떠오르는 정보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경향을 말한다. **예** <사람들에게 작년 겨울 독감에 걸린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물어 보면, 일단 자기 주변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떠올려 추정하게 된다.> 이러한 추정은 적절할 수도 있지만, 실제 발생 확률과는 다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최근에 자신이 경험한 사례, 생동감 있는 사례, 충격적이거나 극적인 사례들을 더 쉽게 회상한다. 그래서 비행기 사고 장면을 담은 충격적인 뉴스 보도 영상을 접하게 되면,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 자동차보다 비행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

4 **시뮬레이션 휴리스틱**은 과거에 발생한 특정 사건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마음속에 떠올려 그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예**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경찰관이 그 용의자의 진술에 기초해서 범죄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 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 경찰관은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가정해야만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상적 장면을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다 보면, 그 용의자가 정말 범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그가 범인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기도 전에 그를 범인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5 이처럼 휴리스틱은 종종 판단 착오를 낳기도 하지만, 경험에 기반하여 답을 찾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판단과 추론이 항상 합리적인 여기서는 이 핵심 문장이 세 가지 휴리스틱의 개념, 특성, 한계점 등을 설명한 본문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지? 사고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결정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가정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 휴리스틱은 우리가 쓰고 싶지 않아도 거의 자동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수많은 대안 중 순식간에 몇 가지 혹은 단 한 가지의 대안만을 남겨 판단하기 쉽게 만들어 준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라고 할 만하다.

3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의 개념
당장 머릿속에 잘 떠오르는 정보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경향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의 특성,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주변의 사례나 충격적인 사례 등을 쉽게 떠올려 추정함.</li> <li>• 실제 발생 확률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일 수 있음.</li> </ul>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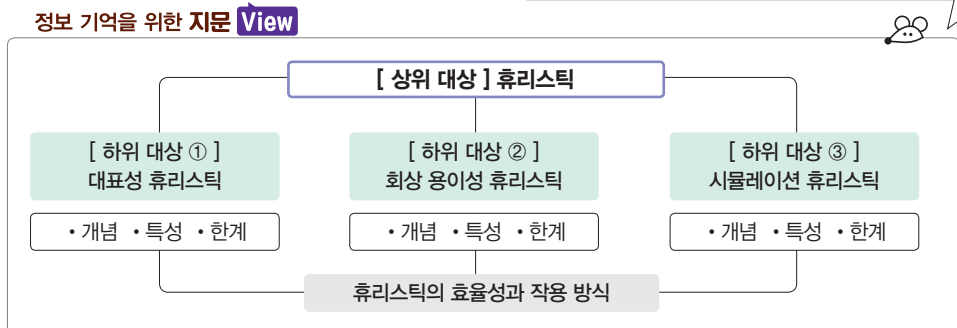
시뮬레이션 휴리스틱의 개념
과거에 발생한 특정 사건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상상해 보는 것
시뮬레이션 휴리스틱의 특성,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적 장면을 자꾸 떠올리다가 사실이 아닌 것을 실제로 생각할 수도 있음.</li> <li>•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li> </ul>

5

휴리스틱의 효율성
중증 판단 착오를 낳기도 하지만, 경험에 기반하여 판단하기 쉽게 해 준다는 점에서 효율적임.
휴리스틱의 작용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지에 상관없이 거의 자동적으로 작용함.</li> <li>• 수많은 대안 중 순식간에 몇 가지 혹은 단 한 가지의 대안만을 남겨 줌.</li> </ul>

**[주제]** 인간의 판단에 작용하는 휴리스틱의 종류와 특성

독서 지문에는 낯설고 어려운 개념이나 용어가 정말 많이 나와. 하지만 제시된 정보나 사례, 시각 자료 등을 100% 활용하게 되면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잘 모르는 개념이나 용어가 나오더라도 멘붕에 빠져 있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지문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보면서 개념이나 용어를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해.





# 03 과학 · 기술 ① - '구조 + 과정'형 지문

→ '구조 + 과정'형 지문이란 대상의 구조와 대상의 진행이나 작용 과정을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으로, 특히 과학 · 기술 영역에서 빈번히 출제되는 지문 형태이다. 과학 ·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면 이런 형태의 지문에 대한 공략법을 확실히 알아두자!



### “과학 · 기술\_빈출 지문 구조”

- ① 특정한 이론이나 개념에 대해 그 원리나 특성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구조
  - ② 설명 대상의 구조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대상의 진행이나 작용 과정을 설명하는 구조
  - ③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학설이나 기술의 변천 · 발전 양상을 설명하는 구조
  - ④ 설명 대상의 한계점을 제시한 후 그에 따른 해결책, 보완 방법을 설명하는 구조
- ⇒ 한 지문에 두 가지 이상의 구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 [지문 구조 이해하기]

이런 형태의 지문은 일반적으로 첫 문단에서 중심 화제와 그에 대한 접근 방향을 제시한다. 2문단부터 그 대상의 세부적인 구조와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 각각의 특징이나 기능 등에 대해 설명한 후, 그 구조 속에서 어떤 현상이나 원리가 순서대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주로 앞의 과정에 따른 결과나 효과 등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한다.

### [지문 공략하기]

지문에서 대상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대상의 진행이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바탕이 되므로, 대상의 구조와 관련된 용어는 충분히 기억할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대상의 진행이나 과정을 이해할 때는 지문이나 <보기>에 제시된 그림 자료와 연결 지어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제시된 그림을 활용하여 해당 구성 요소의 이름을 적거나 확인하고, 번호나 화살표 등을 사용하여 대상의 진행이나 과정의 순서를 따져 가면서 각 단계에서의 양상이나 특징을 적극적으로 메모하거나 표시하는 독해 연습이 필요하다. '구조 + 과정'형 지문은 대체로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대상의 구조를 바탕으로 과정에 관한 핵심 정보를 순서대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문 구조를 분석하고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자.

|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술 |

1

간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임. 몸에 흡수된 영양소들을 다른 영양소로 만들거나 저장함.

1 우리 몸 안에서 가장 큰 장기는 간으로, 커다란 크기만큼 하는 일이 많아서 '인체의 간에 대한 정보 전달의 클임을 짐작할 수 있어. 화학 공장'이라고 한다. 우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위나 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게 되는데, 여기서 흡수된 여러 영양소는 대부분 혈액을 통해 간으로 이동한다. 간은 그 영양소들을 몸에서 요구하는 다른 영양소로 만들거나, 우리 몸을 위해 저장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간의 구조와 혈액의 공급 방식 때문이다.

이 글의 중심 화제가 나왔어. 2문단부터 이런 내용이 순서대로 설명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지?

2

간의 구조
[간소엽] 육각형 기둥 모양 간세포(간의 주요 기능 수행)로 채워짐.
① 중심부 • 중심 정맥 - 간을 거친 혈액을 간 정맥으로 보내 심장으로 흐르게 함.
② 육각형 기둥 모서리 • 간문맥, 간동맥 - 혈액이 다른 장기에서 간으로 유입되는 관 • 담관 - 담즙이 간에서 배출되는 관

2 간은 육각형 기둥 모양의 간소엽이라는 작은 공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부는 간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간세포로 채워져 있다. [간소엽의 중심부]에는 중심 정맥이 놓여 있어 간을 거친 혈액을 간정맥으로 보내 심장으로 흐르게 한다. 그리고 [육각형 기둥의 각 모서리]에는 간문맥, 간동맥, 담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간문맥과 간동맥은 혈액이 다른 장기에서 간으로 유입되는 관이고, 담관은 담즙이 간에서 배출되는 관이다.

2문단에서는 '간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네. 간의 부위별로 어떤 혈관이 지나가고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리해 두는 게 좋겠지?

3 인체의 거의 모든 장기의 혈액 순환은 혈액이 동맥으로 들어와 모세혈관을 거치면서 산소와 영양소의 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맥을 통해 나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간의 혈액 순환은 예외적으로 혈액이 간동맥과 간문맥이라는 2개의 혈관을 통해서 들어 역접의 접속어와 예외를 나타내는 말이 함께 나왔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이라는 직감이 들지? 이런 건 출제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 두자.

3문단에서는 ‘간의 혈액 순환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2문단에 나왔던 혈관들이 또 나오니까 서로 연결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아. 특히 혈액이 지나가는 순서는 매우 중요하니까 번호를 붙여 그 순서를 꼼꼼하게 정리해야 돼.

와 미세혈관을 지나 중심 정맥으로 흘러 나간다.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맥인

①-1 [간동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혈액은 산소를 운반하고, 소장과 간을 연결하는 혈관인

①-2 [간문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혈액은 위나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간으로 이동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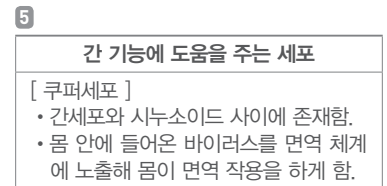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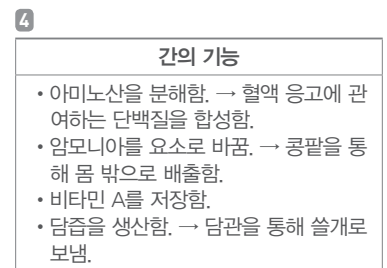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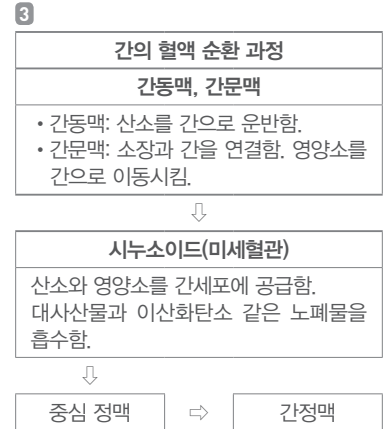
이 두 혈관들은 간소엽 내부에서 점차 가늘어져 ‘시누소이드’라는 미세혈관으로 합쳐  
‘시누소이드 ≡ 미세혈관’이야. 문제에서는 동일한 대상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일부러 헷갈리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 지는데, 시누소이드는 발이랑처럼 길게 배열되어 있는 간세포들 사이에 위치해 있다.

시누소이드를 흐르는 혈액은 대사 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간세포에 공급하고, 간세포의 대사 활동의 결과물인 대사산물과 이산화탄소 같은 노폐물 등을 흡수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물질 교환’이라 한다. 이렇게 시누소이드를 거친 혈액은 중심 정맥으로 유입된 후, 다시 간정맥으로 합쳐져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4 이러한 혈액 순환을 통해서 간에서는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 식사를 통해 몸으로 들어온 단백질은 위나 장에서 아미노산의 형태로 분해되어 혈액과 함께 간으로 이동된다. 간세포는 시누소이드를 통해 공급된 아미노산을 분해하여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때 아미노산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유독 물질인 암모니아가 생성되는데, 간은 이것을 요소로 변화시켜 콩팥으로 보내어 몸 밖으로 배출하게 한다. 또한 간은 비타민 A를 저장하기도 하고, 지방의 소화를 촉진시키는 담즙을 생산하여 담관을 통해 쓸개로 보내기도 한다.

5 그러나 간의 일부 기능은 간세포만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간은 다른 세포의 도움을 앞에서는 간세포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러나’ 이후부터는 ‘쿠퍼세포’라는 다른 세포에 관한 내용으로 전환되고 있어 받아야 한다. 간세포와 시누소이드 사이에 존재하는 세포들 중 쿠퍼세포는 몸 안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를 면역 체계에 노출시켜 몸이 면역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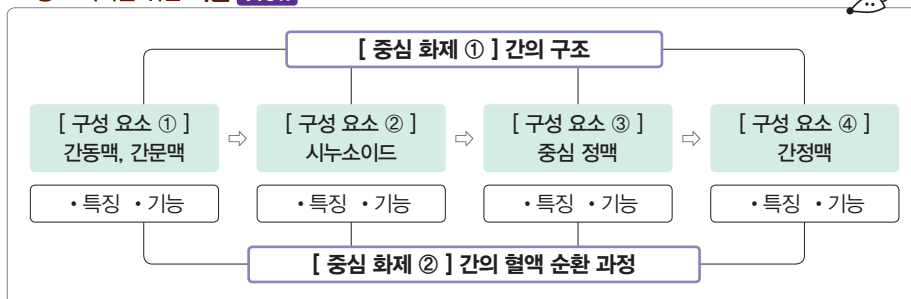
이처럼 간은 1분마다 1.4L의 혈액을 여과하면서 복잡하고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여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의 주제가 담겨 있는 핵심 문장이야. 간에서 일어나는 혈액 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지?



[주제] 간의 구조와 혈액 공급 방식을 통해 본 간의 기능

지문의 첫 문단에 제시된 개념이나 각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후의 전개 내용이나 전개 방식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지문의 내용을 예측하면서 항목별로 정리해서 읽으면 지문의 전체적인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게 될 거야. 문제를 풀 때 지문 전체를 또다시 읽어야 하는 악순환도 피할 수 있고 말이야.

정보 기억을 위한 지문 View





# 04 과학 · 기술 ② \_ 변천 · 발달형 지문



### "과학 · 기술\_빈출 지문 구조"

- ① 특정한 이론이나 개념에 대해 그 원리나 특성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구조
  - ② 설명 대상의 구조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대상의 진행이나 작용 과정을 설명하는 구조
  - ③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학설이나 기술의 변천·발전 양상을 설명하는 구조
  - ④ 설명 대상의 한계점을 제시한 후 그에 따른 해결책, 보완 방법을 설명하는 구조
- ⇒ 한 지문에 두 가지 이상의 구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 변천·발달형 지문이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념이나 이론, 기술 등이 변화해 온 양상을 설명하는 지문 형태이다. 과학·기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며 타 영역에서도 꾸준히 출제되는 편이므로, 지문 공략법을 확실히 알아두고 평소에 반복적으로 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지문 구조 이해하기]

이런 형태의 지문은 일반적으로 첫 문단에서 설명 대상인 중심 화제를 소개한 후, 2문단부터 그 대상이 어떻게 변천·발달해 왔는지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설명해 나간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주로 설명 대상의 가장 발달된 형태를 기준으로 가치나 효용 등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한다.

### [지문 공략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각 문단의 앞부분에서 구체적인 연도나 시대 등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 표시해 두는 것이다. 그런 다음 각각의 연도나 시대에 따라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대상을 찾아 표시해 두고 그 대상의 개념이나 방식, 특징, 한계점 등 주요 정보들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아래의 지문처럼 기술의 발달을 다룬 경우, 기술 1과 비교할 때 기술 2가 더 나아진 점은 무엇인지, 기술 1의 한계점이 기술 2에 의해 어떻게 극복되었는지 등 기술 간의 관계도 파악하면서 독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지문 구조를 분석하고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자.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술]

1

### 제책 기술의 발달이 요구된 배경

- 종이의 개발에 따라 종이로 된 책이 주된 기록 매체가 됨.
- 책의 보존성, 가독성, 휴대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필요해짐.

1 종이 개발되기 전, 인류는 동물의 뼈나 양피지 등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해 왔다. 하지만 담긴 정보량에 비해 부피가 방대하였고 그로 인해 보존과 가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종이의 개발로 부피가 줄어들면서 종이로 된 책이 주된 기록 매체가 되었다. 내용을 전환시키고 있어, 글을 읽을 때는 항상 이런 접속어에 유의해야 해! 책의 보존성과 가독성, 휴대성 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제책 기술의 발달이 요구되었다.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항상 유심히 보라고 했지? 중심 화제를 소개하는 문장이면서 이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야.

2

### 초기의 제책 기술 - 양장

책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표지에 가죽을 씌우거나 나무판을 덧대어 만들.

### 양장의 방법과 특징

- 내지 묶기(실매기 방식)와 표지 제작(판지 + 천, 가죽 등의 접착)을 따로 한 후, 표지의 책등과 결합되는 내지 부분에 접착제를 발라 책등에 붙임.
- 면지 추가 - 내지보다 두껍고 질긴 종이인 면지를 표지와 내지 사이에 붙여 이어줌. → 내구성 향상
- 가열한 쇠막대로 앞뒤 표지의 책등 쪽 가까운 부분을 눌러 홈을 만들. → 펼침성 향상

2 서양은 종이 책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제지 기술이 동양에 비해 미숙했고 질 나쁜 시기나 시대와 관련된 표현은 꼭 표시해 두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책 기술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설명할 것이라는 뜻이니까. 종이로 책을 제작해야 했기에 책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필요했다. 그래서 표지에 가죽을 씌우거나 나무판을 덧대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를 양장(洋裝)이라 한다. 첫 번째 제책 기술이 나왔어. 새로운 제책 기술이 나올 때마다 표시하고 기억해 둬. <양장은 내지 묶기와 표지 제작을 따로 한 후에 합치는 방법이다. 내지는 실매기 방식을 활용해 실로 단단히 묶고, 표지는 판지에 천이나 가죽 등의 마감 재료를 접착하여 만든다. 표지와 내지를 결합할 때는 책등과 결합되는 내지 부분에 접착제를 발라 책등에 붙인다. 또한 내지보다 두껍고 질긴 종이인 면지를 표지와 내지 사이에 접착제로 붙여 이어줌으로써 책의 내구성을 높인다. 표지 부착 후에는 가열한 쇠막대로 앞뒤 표지의 책등 쪽 가까운 부분을 눌러 홈을 만들어 책의 펼침성이 좋도록 한다.> < > : 양장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야. 대상의 구조를 바탕으로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잊지 않았지?

3 18세기 말에 유럽은 산업혁명으로 인쇄가 기계화되면서 대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갖  
시대를 나타내는 표현이 또 나왔네. 꼭 표시해 줘.  
 추어지고, 경제의 발전으로 일부 계층에만 국한됐던 독서 인구가 확대되어 제책 기술  
 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해야 했다. 이를 위해 간편하게 철사를 사용해 매  
 는 제책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처음에는 ‘옆매기’라 불리는 기술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어가 나올 때는 뒤의 내용을 신경 써서 봐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옆매기는 책장 넘김이 용이하지 않아 ‘가운데매기’라 불리는 중철(中綴)이 주된 방식으  
두 번째 제책 기술이야. 어떤 특징이 있는 기술인지 잘 정리해 줘야 해.  
 로 자리 잡았다. 중철은 인쇄지를 포개놓고 책장이 접히는 한가운데 부분을 ㄷ자형 철  
침을 이용해 매었는데, 보통 2개의 철침으로 표지와 내지를 고정하지만 표지나 내지가  
 한가운데서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잦아 철침을 4개로 박기도 하였다. 중철은 광고지,  
 팸플릿 등 오랜 보관이 필요 없거나 분량이 적은 인쇄물에 사용해 왔으며, 중철된 책은  
 쉽게 펼치거나 넘길 수 있고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간편하게 휴대할 수도 있다.

4 20세기 중반에는 화학 접착제가 개발되며 무선철(無線綴)이라는 제책 기술이 등장  
시대를 나타내는 표현은 당연히 표시!  
 했다. 이름처럼 실이나 철사 없이 화학 접착제만으로 책을 묶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자동화가 가능해 대량 생산에 더욱 적합했고,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서 판매 가격을 낮  
 출 수 있어 책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습기경화형 우레탄 핫멜트  
 가 개발되면서 개발 초보다 내구성이 더욱 강화된 책을 만들게 되었다. 무선철 기술은  
 지금도 계속 보완, 발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오늘날 대부분의 책은 무선철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 책등: 책을 매어 놓은 쪽의 표지 부분

3

18세기 말의 제책 기술 - 중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량 생산을 위해 철사로 매는 제책 기술이 개발됨.</li> <li>• 책장 넘김이 쉽지 않은 ‘옆매기’를 대체하여 ‘가운데매기’, 즉 중철이 주로 사용됨.</li> </ul>
중철의 방법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쇄지를 포개놓고 책장이 접히는 한가운데 부분을 ㄷ자형 철침(2~4개)으로 맴.</li> <li>• 오래 보관할 필요가 없거나 분량이 적은 인쇄물에 사용됨.</li> <li>• 쉽게 펼치거나 넘길 수 있고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음.</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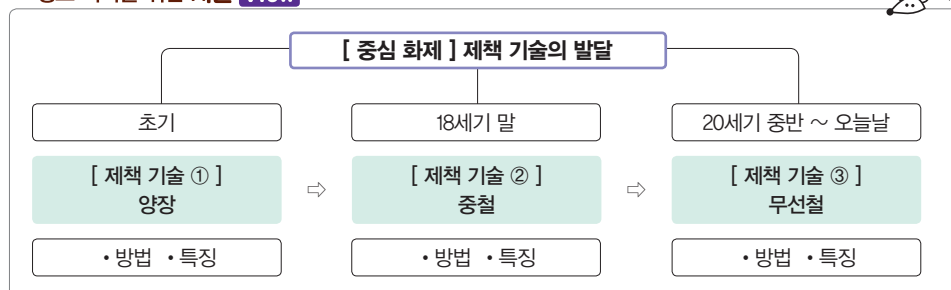
4

20세기 중반 ~ 오늘날의 제책 기술 - 무선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이나 철사 없이 화학 접착제만으로 책을 묶음.</li> <li>• 자동화가 가능하여 대량 생산에 적합함.</li> <li>• 낮아진 생산 단가로 인해 판매 가격이 낮아짐. → 책의 대중화에 기여함.</li> </ul>

[주제] 여러 제책 기술의 등장 배경과 발달 과정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 내용의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사람과 무슨 내용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당연히 전자 쪽에 속해야 하겠지? 그러려면 중심 화제가 무엇인지, 그 중심 화제에 대해 어떤 흐름으로 내용이 전개되는지, 문단과 문단이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등 지문 전체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 해.

정보 기억을 위한 지문 View





# 1 정보의 이해

**정보의 이해**란 지문 속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정보들을 주관적인 해석이나 추리·비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사실적 독해'에 해당한다. 주로 지문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여 선택지와 일치 여부를 판단하거나, 지문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정보를 확인하거나, 정보 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유형으로 출제된다. 이러한 유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요소들 간의 관계를 적절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	유형 진단 및 해결법
세부 정보의 파악	지문에 제시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세밀하게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 유형 → 일반적으로 지문 전체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묻기 때문에, 선택지의 내용이 지문의 어느 부분과 관련되는지 확인하여 그 일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핵심 정보의 파악	제목이나 표제, 부제를 묻는 형식으로 지문의 중심 화제나 핵심적인 정보를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 유형 → 문단별 중심 내용을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지문 전체의 핵심을 도출한다. 일반적으로 첫 문단이나 둘째 문단에서 많이 반복된 개념이나 정보 위주로 확인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정보 간의 관계 파악	지문에 제시된 여러 정보들의 연결 관계를 바탕으로 정보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 유형 →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이나 정보, 대립되는 주장이나 이론 등이 제시된 경우, 각각의 특성과 차이점, 공통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파악한다.

**사실적 독해**

세부 정보와 핵심 정보,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내용의 사실적 이해'와 지문 전체의 구조와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구조의 사실적 이해'로 크게 나눌 수 있음.

**기출로 유형 훈련하기**

- 1 조세는 국가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 주체인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이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를 강제로 부과하다 보니 경제 주체의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공평하지 못해 불만을 야기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조세를 부과할 때는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 2 우선 ㉠ **조세의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면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적게 구매하기 때문에 상품을 통해 얻는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게 되고, 생산자가 상품을 팔아서 얻는 이윤도 줄어들게 된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는 편익이 줄어드는 것을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하는데 조세로 인하여 경제적 순손실이 생기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이처럼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경제적 순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도록 조세를 부과해야 조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3 ㉡ **조세의 공평성**은 조세 부과와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조세의 공평성이 확보되면 조세 부과와 형평성이 높아져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이 있다. 편익 원칙은 조세를 통해 제공되는 도로나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저항이 크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재의 사용량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조세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가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중심 화제] \_\_\_\_\_

1의 중심 내용 \_\_\_\_\_

2의 중심 내용 \_\_\_\_\_

3의 중심 내용 \_\_\_\_\_



④ 능력 원칙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한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조세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능력 원칙은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으로 나뉜다. 수직적 공평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정 세금을 내야 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나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시행하기도 한다. <후략>

④의 중심 내용

[주제]

“ ‘정보의 이해’라는 문제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문에서 문제의 선택지(①~⑤)별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정리하는 과정(‘정보 확인 문제’ 참조)이 필요하다. ‘정보의 이해’ 중 ‘정보 간의 관계 파악’ 유형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과정을 훈련해 보자. ”

· ‘정보 확인 문제 → 기출 문제’의 순서로 풀어 보자.

정보 확인 문제

맞는 설명에는 O표를, 틀린 설명에는 X표를 해 보자.

- ① • 조세로 인해 경제적 순수손실이 생기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 )
  - 경제적 순수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세를 부과하면 ㉠을 높일 수 있다. ( )
- ② • ㉠이 확보되면 조세 부과의 형평성이 높아져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 )
- ③ • ㉠을 확보하기 위해 편의 원칙과 능력 원칙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 ( )
  - 능력 원칙은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되어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 )
  - ㉠은 경기 둔화를 야기하는 경제적 순수손실의 최소화와 관련된다. ( )
- ④ • ㉠을 통해 조세가 형평성 있게 부과될 수 있다. ( )
  - ㉠은 조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순수손실과 경기 둔화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 )
- ⑤ • 조세 부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과 ㉡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

기출문제

정보 간의 관계 파악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조세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
- ② ㉠은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③ ㉠은 ㉡과 달리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 ④ ㉠은 ㉠과 달리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 ⑤ ㉠과 ㉡은 모두 조세를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건이다.

“정보 간의 관계 파악 \_ 정복하기”

[ 1단계 ] 정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한다.

㉠과 ㉡이라는 두 정보를 비교하는 문제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지의 내용을 훑어본 후 각각의 선택지와 관련된 내용을 지문의 ㉠, ㉡ 앞뒤에서 모두 찾아 표시해 두거나 간단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연해 보이지만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 ㉡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지문에서 선택지의 근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고 확인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임을 명심하자.

[ 2단계 ]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1단계에서 확인한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 ㉡ 각각의 개념과 특성뿐만 아니라 ㉠과 ㉡의 차이점과 공통점에서 드러나는 상호적인 관계까지 파악하여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과 ㉡이 원인-결과, 문제-해결법, 조건-판단 등의 관계를 이루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자. 또한 ‘㉠은 ㉡과 달리 A한다.’와 같은 선택지는 A가 ㉠에는 해당하지 않고 ㉠에만 해당함을 명확히 이해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 02 정보의 추론

**정보의 추론**이란 지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지문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 내는 '추론적 독해'로, '정보의 이해' 유형보다 한 차원 높은 사고력을 요구한다. 주로 지문의 사실적 정보를 바탕으로 생략된 내용이나 내포된 의미를 추리하거나, 핵심 논지를 바탕으로 그 의도나 관점 등을 추리하거나, 주장이나 이론과 관련된 전제나 이유 등을 추리하는 유형으로 출제된다. 이러한 유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사실적 이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를 올바르게 추리해 낼 수 있는 깊이 있는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	유형 진단 및 해결법
미루어 알기	생략된 내용이나 앞에 전개되었거나 뒤에 전개될 내용, 암시적으로 표현된 내용 등의 정확한 의미를 추리하는 문제 유형 → 추론할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지문에서 빠짐없이 찾아 논리적인 연관 관계에 입각하여 추론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의도, 관점, 태도의 추리	중심 화제에 대한 글쓴이의 기본적인 입장과 태도, 관점, 글을 쓴 목적이나 의도 등을 추리하는 문제 유형 → 글쓴이가 중심 화제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해 어떤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지,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전제, 원인, 이유의 추리	특정한 주장이나 이론을 이끌어 내는 데 전제로 삼은 것과, 어떤 사실이나 결과가 도출되는 데 영향을 미친 원인이나 이유 등을 추리하는 문제 유형 → 먼저 주장, 이론, 사실, 결론 등을 명확히 파악한 후, 그것이 도출되는 과정을 바탕으로 전제, 원인, 이유와의 논리적 관계가 성립하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추론**

어떤 판단을 근거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을 의미함.

**논지**

어떤 의견이나 이론을 설명하거나 그 옳고 그름을 따져 말하는 데 근본이 되는 목적이나 뜻

**전제**

어떤 주장이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내세우는 것으로, 추리 과정에서 결론의 기초가 됨.

**기출로 유형 훈련하기**

-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에는 소인국과 거인국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걸리버와 같은 인간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소인국 사람들은 걸리버보다 12배 작게, 거인국 사람들은 걸리버보다 12배 크게 묘사되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은 소설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왜 불가능할까?
- 우선, 면적과 부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각 변의 길이가 1m인 주사위의 표면적은  $1m \times 1m \times 6(\text{개}) = 6m^2$ , 부피는  $1m \times 1m \times 1m = 1m^3$ 이다. 변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표면적은  $24m^2$ , 부피는  $8m^3$ 로 커진다. 즉 길이가 L배 길어지면 표면적은  $L^2$ , 부피는  $L^3$ 에 비례하여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법칙을 '면적-부피의 법칙'이라 한다. 이 법칙은 밀도가 일정하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크기만 바뀌는 경우라면 물체가 어떤 형태이든 그대로 적용된다. <중략>
- 인간과 같은 항온 동물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발산해야만 한다. 그런데 세포의 대사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열에너지는 몸의 부피에 비례하고,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체외로 발산되는 열에너지는 몸의 표면적에 비례한다. '면적-부피의 법칙'을 적용하면 소인국 사람은 걸리버에 비해 부피는  $1/12^3$ 로, 표면적은  $1/12^2$ 로 줄어든다. 이는 에너지 생산량은  $1/12^3$ 이나 줄었는데 몸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의 양은  $1/12^2$ 밖에 줄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보다 발산되는 에너지의 양이 더 많아진 소인국 사람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다.

**[중심 화제]** \_\_\_\_\_

**1의 중심 내용** \_\_\_\_\_

**2의 중심 내용** \_\_\_\_\_

**3의 중심 내용** \_\_\_\_\_

- ④ 거인국 사람도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동물은 근육의 힘으로 무게를 지탱하는데,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의 세기는 근육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만일 근육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몸의 길이가 2배가 된다면, ‘면적-부피의 법칙’에 따라 근육 단면적이 2<sup>2</sup>인 4배가 되어 힘의 세기도 4배로 커지게 된다. 거인국 사람은 걸리버보다 12배 더 크기 때문에 다리 힘의 세기는 12<sup>2</sup>배 늘어나지만 무게는 12<sup>3</sup>배 늘어난다. 이는 거인국 사람의 무게가 다리로 버틸 수 있는 힘의 세기보다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거인국 사람은 다리가 부러지거나 땅에 주저앉게 될 것이다.
- ⑤ 크기는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뿐만 아니라 크기는 생명체의 생존 방식과도 연관이 깊다. 만약 ㉠『걸리버 여행기』의 등장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소인국과 거인국 사람들은 결코 걸리버와 같은 인간의 형태와 생존 방식을 지니고 있지 못할 것이다.

④의 중심 내용

⑤의 중심 내용

[주제]

“ ‘정보의 추론’이라는 문제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문에서 문제의 선택지(①~⑤) 별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정리하는 과정(‘정보 확인 문제’ 참조)이 필요하다. ‘정보의 추론’ 중 ‘미루어 알기’ 유형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과정을 훈련해 보자. ”

· ‘정보 확인 문제 → 기출 문제’의 순서로 풀어 보자.

정보 확인 문제

맞는 설명에는 O표를, 틀린 설명에는 X표를 해 보자.

- ① 소인국 사람은 대사 활동을 줄여 생산되는 에너지보다 발산되는 에너지의 양을 더 늘리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 )
- ② 거인국 사람은 몸이 크지만 근육의 단면적은 좁아져 힘의 세기가 작아지게 된다. ( )
- ③ 몸무게가 다리로 버틸 수 있는 힘의 세기보다 커져 땅에 주저앉게 되는 것은 거인국 사람이 아니라 소인국 사람이다. ( )
- ④ 거인국 사람이 제대로 걸으려면 몸무게에 비해 다리의 힘의 세기가 커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리 근육의 단면적이 더 커져야 한다. ( )
- ⑤ 소인국 사람은 다리의 힘의 세기가 몸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므로 근육의 단면적을 더 늘려 다리의 힘의 세기를 늘려야 한다. ( )

기출문제

미루어 알기

윗글을 읽고 ㉠에 대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인국 사람은 대사 활동을 줄일수록 생존에 유리하겠군.
- ② 거인국 사람은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의 세기가 작아지겠군.
- ③ 소인국 사람은 가늘어진 다리로 인해 땅에 주저앉게 되겠군.
- ④ 거인국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다리가 굵어야 걸을 수 있겠군.
- ⑤ 소인국 사람은 근육의 단면적을 늘려야만 움직일 수 있겠군.

“미루어 알기 \_ 정복하기”

[ 1단계 ] 정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한다.

위의 ㉠과 같이 특정한 내용에 대해 추론하는 문제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 내용과 선택지의 내용을 확인한 후 추론의 근거가 될 만한 정보들을 지문에서 모두 찾아 표시해 두거나 간단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걸리버에 비해 몸이 12배 작은 소인국 사람의 경우와 몸이 12배 큰 거인국 사람의 경우를 명확히 나누어, 대사 활동, 힘의 세기, 근육의 단면적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한다.

[ 2단계 ] 적절한 정보를 추론한다.

1단계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지의 내용을 ‘몸의 부피, 표면적-에너지-대사 활동’의 관계, ‘몸무게-다리 힘의 세기-근육의 단면적’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해한 다음, 적절한 추론이 이루어진 선택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추론의 적절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이나 상식이 아닌, 항상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근거로 삼아 판단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 03 정보의 비판

**정보의 비판**이란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독해'를 가리킨다. 주로 지문이나 <보기>에 나타난 특정한 견해나 주장, 이론 등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판단하거나, 공통된 화제에 대한 특정한 관점이나 태도를 기준으로 또 다른 관점이나 태도를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유형으로 출제된다. 이러한 유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이해력뿐만 아니라 정보의 타당성과 적절성, 가치까지 평가할 수 있는 고차원의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	유형 진단 및 해결법
반응의 적절성 판단	특정한 견해나 주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문제 유형 → 견해나 주장의 핵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 내용을 근거로 선택지에 제시된 반응이 왜곡이나 확대 해석 없이 논리적으로 적절하게 서술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관점과 태도의 비판	<보기>의 내용을 기준으로 지문에 드러난 관점이나 태도를 비판하거나, 지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기>에 드러난 관점이나 태도를 비판하는 문제 유형 → 지문이나 <보기>에 제시된 각각의 견해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점과 태도의 차이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주장이나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의 타당성 등을 비판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비판**

의견이나 행위의 주체와 반대되는 입장 혹은 다른 입장에서 그 내용이 나 형식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의미함.

**관점**

사물을 보는 입장으로, 글을 쓸 때 동일한 상황이나 대상을 소재로 삼더라도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됨. 따라서 지문을 독해할 때, 글쓴이의 태도와 관점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기출로 유형 훈련하기**

- 1 사람들은 누구나 정의로운 사회에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철학자 로버트 노직과 존 롤스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
- 2 자유지상주의자인 노직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모든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한다. 개인이 정당하게 얻은 결과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소유에 대해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소유권이라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중략>
- 3 롤스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한다.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조건은 사회 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정의로운 세계의 규칙 또는 기준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두 번째 조건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는 인간의 출생, 신체, 지위 등에는 우연의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누구나 우연에 의해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 된다. 마지막 조건은 개인이 정당하게 얻은 소유일지라도 그 이익의 일부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가 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으므로, 자발적 기부나 사회적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사회 전체로 볼 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 4 노직과 롤스는 이윤 추구나 자유 경쟁 등을 허용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노직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여 사회적 약자의 자연적·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을 개인의 선택에 맡긴다. 반면에 롤스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한편, 사람들이 공정한 규칙에 합의하는 과정도 중시하며, 자연적·사회적 불평등을 복지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스의 주장은 소수

**[중심 화제]** \_\_\_\_\_

**1의 중심 내용** \_\_\_\_\_

**2의 중심 내용** \_\_\_\_\_

**3의 중심 내용** \_\_\_\_\_

**4의 중심 내용** \_\_\_\_\_

의 권익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했으며, 평등의 이념을 확장시켜 복지 국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주제] \_\_\_\_\_

“ ‘정보의 비판’이라는 문제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문에서 문제의 선택지(①~⑤) 별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정리하는 과정(‘정보 확인 문제’ 참조)이 필요하다. ‘정보의 비판’ 중 ‘관점과 태도의 비판’ 유형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과정을 훈련해 보자. ”

： ‘정보 확인 문제 → 기출 문제’의 순서로 풀어 보자.

**정보 확인 문제**

맞는 설명에는 O표를, 틀린 설명에는 X표를 해 보자.

보기

- 벤담은 다수의 행복을 위한 소수의 불행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다수의 불행은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벤담은 다수의 사람들이 결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을 당연하다고 보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강제적으로 막을 것을 주장한다. ( )

- ① 롤스는 다수의 처지를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사회 전체로 볼 때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 )
- ② 롤스는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된 원칙보다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③, ④ 롤스가 주장하는 정의로운 사회의 세 가지 조건에는 인간의 감정적 차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
- ⑤ 롤스는 누구나 우연에 의해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 )

**“관점과 태도의 비판 \_ 정복하기”**

**[ 1단계 ]** 정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한다.

위와 같은 문제의 경우, 비판의 기준이 되는 ‘롤스의 입장’ 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보기)의 입장, 즉 ‘벤담의 입장’ 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 에 대해 두 철학자가 보인 견해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그에 관한 정보들을 모두 찾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이와 같이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다른 인물의 입장을 비판하는 문제의 경우, 선택지에 제시된 내용이 둘 중 누구의 입장에 가까운지 판단하면 문제를 한결 수월하게 풀 수 있다.

**기출문제 관점과 태도의 비판**

윗글을 이해한 학생이 롤스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의로운 것이라 주장했다. 따라서 다수의 최대 행복이 보장된다면 소수의 불행은 정당한 것이 되고, 반대로 다수의 불행이 나타나는 상황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된다. 벤담은 결인과 마주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거리에서 결인을 사라지게 해야 한다며 결인들을 모두 모아 한곳에서 생활시키는 강제 수용소 설치를 제안했다.

- ① 다수의 처지를 배려할 때 사회 전체의 행복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 ② 문제를 강제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맡겨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 ③ 감정적 차원에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인간적 도리를 지키지 않는 태도가 아닌가요?
- ④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인에게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⑤ 결인이 된 것은 우연적 요소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정의로운 것이 아닌가요?

**[ 2단계 ]** 비판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1단계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롤스의 입장’ 에서 ‘벤담의 입장’ 을 적절히 비판한 선택지를 찾는다. 1단계의 정보 확인을 통해 롤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복지 제도를 중시하는 반면, 벤담은 소수의 행복보다 다수의 행복을 중시하는 상반된 관점과 태도를 보여 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에 주목하여 1단계에서 확인한 정보들을 근거로 삼아 선택지들의 비판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한지 평가하면서, 논리적인 비판이 이루어진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

# 04 정보의 적용 / 창의

정보의 적용과 창의란 지문에 제시된 개념이나 원리 등의 정보를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사실적 정보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내용을 생성하거나 조직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 유형이다. 주로 지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기>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적용해 보는 유형, 다양한 글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목적이나 조건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하는 유형으로 출제된다. 이러한 유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문의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한 뒤, 이러한 정보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생성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 창의적 사고력

제시된 내용으로부터 새로우면서도 의미 있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새로운 형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창의적 독해'에 필수적인 능력이며, 응용력, 상상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유형	유형 진단 및 해결법
구체적 상황 (사례)에의 적용	지문에 제시된 일반적인 정보를 <보기>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례에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능력과 깊이 있고 세밀한 이해력을 평가하는 문제 유형 → 지문에 제시된 개념, 원리, 방법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 내용과 <보기>의 상황이나 사례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1 : 1로 대응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적용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내용의 조직과 재구성	동일한 화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드러난 글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거나, 제시된 내용을 새로운 내용이나 형식으로 만드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유형 →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알맞게 다양한 관점이 드러난 글들을 비교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출로 유형 훈련하기

-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에 담을 대상인 중심 피사체를 먼저 선정하여 화면 중앙에 놓고 이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다음 중심 피사체와 주변 풍경을 적절하게 구획하여 안정된 구도로 사진을 찍는 것이 일반적인 프레임 구성 방법이다. 그런데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요소들이 개입하여 일반적인 프레임 구성 방법에서 벗어났음에도 미적 효과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예가 솔더샷 프레임이다.
- 솔더샷 프레임이란 등에 업힌 아이가 어깨 너머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프레임 안에 장애물을 배치하여 감상자가 장애물 너머로 중심 피사체를 보도록 유도하는 프레임 구성 방법이다. 솔더샷 프레임을 활용하면 프레임 안에 삽입된 장애물로 인해 감상자가 시각적인 긴장감을 느끼게 되어 중심 피사체에 대한 감상자의 집중도가 높아지게 된다.
- 솔더샷 프레임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여 구성한다. 첫째, 사진에 담고자 하는 중심 피사체 앞에 장애물을 배치한다. 장애물을 배치하면 감상자가 눈에 잘 띄는 장애물을 먼저 본 다음에 중심 피사체를 보기 때문에 중심 피사체로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때 장애물이 중심 피사체보다 크면, 장애물이 감상자의 눈에 더 잘 띄게 된다. 그리고 장애물의 형태나 자세, 시선 등이 중심 피사체를 향하도록 하면 감상자의 시선을 중심 피사체로 이끌어 주는 지시성이 강화된다. 둘째, 중심 피사체에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반면 장애물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러면 감상자는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하게 보이는 장애물보다 초점을 맞춘 대상을 중심 피사체로 인식하여 시선을 집중하게 된다. 셋째, 중심 피사체와 장애물의 밝기를 대비시킨다. 중심 피사체는 밝게, 장애물은 어둡게 촬영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밝음과 어둠이 대비되면서 감상자가 중심 피사체를 주목하게 된다. <후략>

[중심 화제] \_\_\_\_\_

①의 중심 내용 \_\_\_\_\_

②의 중심 내용 \_\_\_\_\_

③의 중심 내용 \_\_\_\_\_

[주제] \_\_\_\_\_

“ ‘정보의 적용 / 창의’라는 문제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문에서 문제의 선택지 (①~⑤)별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정리하는 과정(‘정보 확인 문제’ 참조)이 필요하다. ‘정보의 적용 / 창의’ 중 ‘구체적 상황에서의 적용’ 유형을 통해 해결 과정을 훈련해 보자. ”

· ‘정보 확인 문제 → 기출 문제’의 순서로 풀어 보자.

**정보 확인 문제**

맞는 설명에는 O표를, 틀린 설명에는 X표를 해 보자.

보기

- 장애물인 여자보다 작게 촬영된 남자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중심 피사체에 해당한다. ( )
- 사진에서 남자를 향하여 서 있는 여자는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장애물로, 남자보다 앞에 배치되고 크게 촬영되었다. ( )

- ① 솔더샷 프레임은 중심 피사체는 밝게, 장애물은 어둡게 촬영한 대비를 통해 감상자가 중심 피사체를 주목하게 한다. ( )
- ② 솔더샷 프레임은 중심 피사체는 초점을 맞추고 장애물은 초점을 맞추지 않아 흐릿하게 보이도록 하여, 초점을 맞춘 대상을 중심 피사체로 인식하게 한다. ( )
- ③ 솔더샷 프레임은 장애물의 자세, 시선 등이 중심 피사체를 향하도록 하여 감상자의 시선을 중심 피사체로 이끌어 주는 지시성을 강화한다. ( )
- ④ 솔더샷 프레임은 중심 피사체 앞에 장애물을 배치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눈에 잘 띄는 장애물을 먼저 본 후 중심 피사체를 보게 한다. ( )
- ⑤ 솔더샷 프레임은 중심 피사체보다 눈에 잘 띄도록 크게 촬영한 장애물에 감상자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 )

**“구체적 상황에서의 적용 \_ 정복하기”**

**[ 1단계 ]** 정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한다.

위와 같이 시각 자료와 그에 대한 설명이 <보기>로 제시된 문제의 경우, <보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효율적이다. <보기>에서 크게 촬영되었지만 흐릿하게 처리된 여자가 장애물에 해당하고, 작지만 또렷하게 처리된 남자가 중심 피사체라는 점을 먼저 파악한다. 그런 다음 ‘장애물-중심 피사체’의 관계에 주목하여 솔더샷 프레임의 촬영 기법에 대한 정보를 지문에서 찾아 관련된 선택지별로 정리한다.

**기출문제**

**구체적 상황에서의 적용**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진동선, 「이탈리아 퍼렌체」>

이 사진은 남자를 향하여 서 있는 여자를 장애물로 배치하여 솔더샷 프레임으로 촬영한 것이다.

- ① 중심 피사체와 장애물의 밝기를 대비시켜 감상자가 중심 피사체를 주목하게 하는군.
- ② 장애물을 흐릿하게 촬영하여 초점을 맞춘 대상을 감상자가 중심 피사체로 인식하게 하는군.
- ③ 장애물의 자세가 중심 피사체를 향하게 함으로써 중심 피사체에 대한 지시성이 강화되고 있군.
- ④ 장애물을 중심 피사체보다 앞에 배치하여 장애물이 중심 피사체보다 감상자의 눈에 먼저 띄게 하는군.
- ⑤ 장애물을 중심 피사체보다 크게 촬영하여 감상자의 시선이 중심 피사체를 거쳐 장애물로 집중되게 하는군.

**[ 2단계 ]** 적용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1단계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솔더샷 프레임에서 장애물과 중심 피사체를 처리하는 각각의 방식과 효과 등을 정확히 이해한다. 이렇게 이해한 정보를 사진의 여자인 장애물과 남자인 중심 피사체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적절한 내용을 진술한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 특히 위의 문제와 같이 장애물과 중심 피사체라는 상반된 요소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 두 요소에 대한 내용을 서로 바꾸어 틀린 선택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자.